

美國經濟와 國際貿易 環境의 不安



林 承 宅
韓國貿易協會 貿易振興部長

주요 선진국간의 국제수지 불균형은 환율의 조정과 日·歐의 내수진작으로 다소 개선됨으로써 美의 적자, 日·歐의 흑자가 각각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보호주의 체제 강화를 진행. 다자간 무역체제 모색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개시되지만 주요국간 자유무역 시도가 확산될 것이다.

오늘날 국제무역환경의 근원적인 불안요인은 그동안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美國의 리더십 弱化和 EC와 日本 등의 선진국간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협조와 노력부족, 그리고 제3세계의 부채문제를 불러온 國際財의 불건전한 운용 등에서 기인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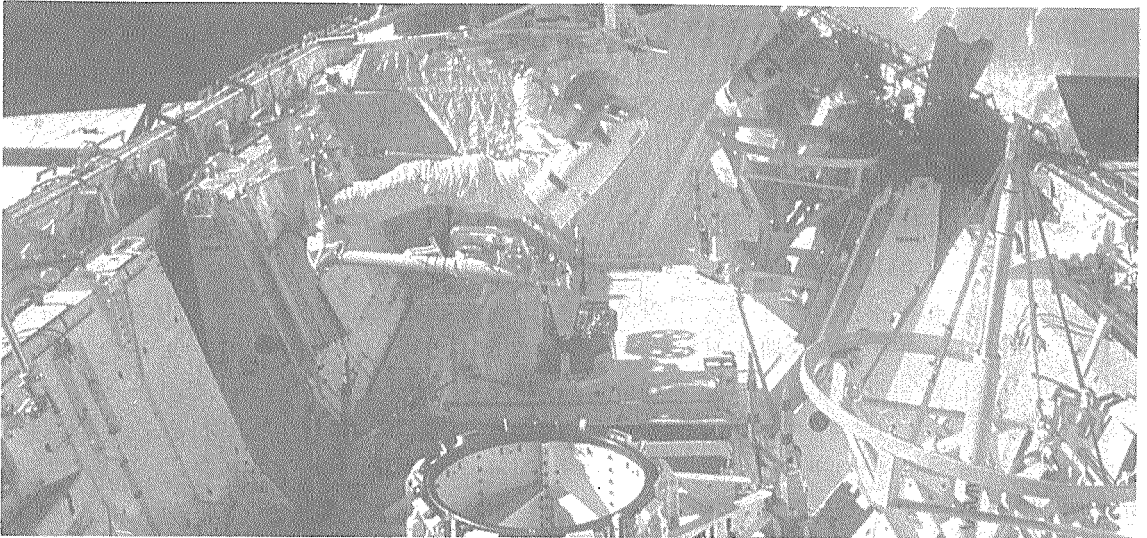
세계 2차 대전에서 본토의 직접적인 전쟁피해가 비교적 없었던 美國이 승전국으로서의 여유를 누리면서 마샬 플랜으로 西歐를 복구하고 패전국 日本을 재건시킴으로써 세계經濟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왔다. 세계 1차 대전 이전의 영국이 식민지 개척과 더불어 세계무역을 지배하면서 국제共通財로서의 스테링 파운드 貨를 공급하여 왔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美國이 이에 대신해서 西歐와 日本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국제共通財로서의 달러 貨를 공급하면서 그들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왔던 것이다. 리더십과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에는 일종의 희생의 대가인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東西冷戰이후 세계의 경찰로서 지구의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정치·군사적 굵은 일들을 모두 부담하여 오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것을 그들은 대국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구상의 반쪽인 공산진영의 리더십은 소련에서 장악하게 되면서 이와외 경쟁비용마저 계속 증대케 하여 군사력 유지와 우주개발 등에서 선두 다툼이 치열하여 財政赤字가 늘어났다.

1986회계연도에만도 정부재정 적자가 2,207억 달러에 이르러 이에대한 이자만도 136억달러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적자를 增稅로서 충당하지않고 오히려 레이건 대통령은 고집스럽게도 減稅를 통한 공급측면의 자극정책과 高金利 정책을 무모하게 펼쳐 나감으로써 財政과 貿易의 쌍둥이 적자를 지속하게 되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980년 363억달러, 1981년 397억달러, 1982년 416억달러, 1983년 694억달



국제무역환경의 諸 불안요소와 선진국의 각종 규제에 우리에게는 통상압력과 의무가 지워질 것이다.

러에서 1984년에 1,233억달러로 급증하였고 1985년 6월말에는 美国이 債務国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에 85년 9월22일에 선진 5개국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의 소위 G-5 회담에서 그동안 미국의 경제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온 달러화의 강세를 시정키로 합의하게 되었다.

미국은 그들의 재정적자를 국내의 增稅로서 충당치 아니하고 재정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결국은 日本의 저축한 돈을 끌어들이어 미국재정증권을 매입케함으로써 메워지게 되었다.

더우기 西歐와 日本의 산업경쟁력이 미국을 앞서가고 있음에도 美国이라는 허세에 의한 美 달러 貨의 지나친 강세지속은 더욱더 美国의 대외무역적자를 누증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환율조정으로 치유하려 하였다. G-5 회담이후 달러가치는 급락하고 대신에 日本과 歐洲通貨가 엄청난 강세로 돌아섰지만 미국의 貿易赤字는 좀처럼 개선되지 아니하여 1985년 1,485억달러, 1986년 1,664억달러로서 좀처럼 감소되지 않고 1987년에도 1,700억달러선(11월말 1,5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美国의 財政과 貿易赤字를 歐洲와 日本의 資本流入과 黒字로서 메꾸어나가게 됨에 따라 미국경제의 허약성을 드러내면서 미국의 위세는 떨어지고 있다. 결국 미국은 일본과 구주의 돈과 물건으로서 재정과 국내소비를 메꾸면서도

그들의 군대를 일본과 구주를 위하여 파견하는 용병의 처지로 전락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

국제경제질서는 국제통화 체제면에서 볼때에 아담 스미스 이래로 金 또는 金兌換의 基軸通貨에 의한 自動調節機能에 의하여 조정되고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었는데 1차 대전의 발발로 영국 파운드 貨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본위제도가 붕괴되면서 국제통화의 국제수지 조절기능이 상실되어 국제금융질서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이에 1944년 7월에 美 달러를 金兌換에 연결하여 35달러에 金 1 온스로 하는 고정환율제를 내용으로 한 국제통화협력체제인 소위 Bretton Woods 체제를 출범시켜 1950년대말까지 달러가치의 안정에 힘입어 국제경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왔었다.

그러나 미국은 1960년대의 국제수지적자 누적과 유럽통화 강세로 1971년 8월에 미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국제유동성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SDR(특별인출권)을 창출하고 달러 貨의 평가절하 및 기준율을 채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스미스 소니언 협정에 합의하였다.

그후 1973년 EC와 일본 등 주요선진국들도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게 되었고 이윽고 1976년에 IMF는 공식적으로 金の 廢貨를 선언하고 IMF

신용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킹스톤 협정을 체결하여 신국제통화제도를 출범시켰다.

이처럼 서방제국이 관리통화제에서 변동환율제를 채택한 이후인 1980년 8월 이후에 미국은 고금리정책과 국내경기회복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중동정세 불안마저 겹쳐 미달러에 대한 강세가 1985년초까지 지속되어 왔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쟁력 약화에 의한 무역적자의 누적으로 歐洲과 日本에 美 달러가 과잉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강세가 지탱되고 있었으므로 미국의 수출경쟁력은 더욱더 저해되어 무역수지적자는 가속적으로 팽창하게 되었으므로 각국의 공동노력과 협조로써 이를 방지하려고 한 것이었다.

물론 G-5 회담으로 달러 강세의 신속한 시정이 이어졌음에도 국제간 무역불균형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때 美 달러가 基軸通貨인 국제共通財로서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소위 국제 무역의 절대적 조절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제는 각국의 경제적 경쟁력에 따라 더 큰 폭으로도 환율이 변동할 수 있다는 국제유동성에 대한 불안심리마저 감돌게 되었다.

이제 美國의 경제적 경쟁력면에서나 국제통화 관리체계면에서 볼 때 미국 단독의 리더쉽 구가는 어렵게 되었고 결국은 日本과 西歐의 協助體制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영국이 물러난 뒤를 이어 받은 미국의 지위는 그들이 도와주었던 독일과 일본의 산업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미국은 더욱 곤경에 빠져들었고 그동안 간헐적으로 서구와 일본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대국으로서의 부담분담을 요청하여 왔었다.

그러나 협조가 실통치 아니한 상태에서 자국이 익 취득에 급급하게 되자 자유무역주의자였던 미국자신이 G-5 회담이후에 각국에 역할분담과 압력을 가하면서 보호주의적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세계경제에 대한 서구와 일본의 협조가 부진하였던 가운데 선진국간의 무역불균형을 치유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좀 위압적일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이들의 전략

방위면에서나 경제면에서 미국과의 유착의 심도가 깊고 미국경제의 규모와 향배가 아직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서구제국에게 소련의 에너지 프로젝트 참가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했지만 소련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강행하였고 서독과 일본의 내수확대를 요구했지만 서독은 미국의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FRB의 정책완화를 요구하는가 하면 구주통화동맹을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소위 미국으로 하여금 헐크식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상징이나 하듯 작년 10월 19일에 소위 Black Monday가 발생하였다.

즉 이러저러한 그간의 상황에서 10월 13일 미국정부는 8월달 무역수지가 예상보다 낮은 157억달러라고 발표했고 14일에는 케미컬 은행의 우대금리가 0.5% 포인트가 인상되면서 채권이율이 10%나 올랐다. 이어 19일 아침 미국이 이란석유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컴퓨터 프로그램 거래로서 야기된 뉴욕 증권시장의 대폭락 사태를 가져왔다.

다우존스지수가 508.32포인트가 내려간 1,738.4를 기록 22.62%가 하락하였는데 IBM株가 31달러 떨어져 104달러가 되었고 GM은 13.87달러가 떨어져 52.12달러가 되는 등 1929년 10월 28일의 대폭락시 12.8%보다 큰 증시투매가 일어나면서 거래량도 6억 450만주를 기록하여 단 하루에 불란서의 연간 GNP와 맞먹는 5,600억달러의 가액이 소멸되었고 다음날 런던은 12.2%, 동경은 15%, 파리 6%, 토론토 6.7%가 하락되었으며 홍콩증권거래소는 1주간 휴장끝에 열린 26일에 항생지수가 33%가 빠졌다.

그러나 다행히 1929년의 금융공황과는 달리 전면적인 경제붕괴는 모면하였지만 불안의 요인이 제거된 것은 아니고 언제나 재발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그같은 문제가 선진국 파트너들과의 문제로 복잡하게 뒤얽혀지는 가운데 또 한편에서는 제3세계 개도국과는 외채문제로서 어려움이 중첩되고 있다.

개도국 외채문제도 그 경과를 살펴보면 선후 진국간의 국제경제 구조하에서 발생된 것이다.

1973~74년에 OPEC국가들은 석유가격을 일시에 4배나 인상하므로써 세계자본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데 OPEC 국가는 배돈을 끊어 모았고 그 밖의 나라들은 기름값으로 훨씬 많은 돈을 지출하여 산유국은 흑자를 비산유국은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2차 석유파동이 있기 전인 74~79년 기간에만도 OPEC 국가가 2,20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OECD 회원국이 1,000억달러 적자를, 비산유 개도국인 NOPEC 국이 1,50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심한 불균형을 가져왔다. 어쨌든 적자는 메꾸어야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재무상 모하메드 아발카일은 이 엄청난 오일 머니를 관리하는데에 주식 취득을 피하고 미재무성 증권이나 유로 시장의 단기채를 구입하고 특히 주요 국제은행에 예금하도록하는 등 단기 투자에 주력하였다. 국제은행들은 수중에 들어간 막대한 오일 머니를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미래의 환상의 대국을 향하여 대단한 개발의욕을 보인 브라질, 멕시코, 알렌틴, 베네쥬엘라 등에 빌려 줌으로써 국내보다도 해외금융에서 큰 재미를 보았다.

개도국의 빛은 마침 국제고금리 체제하에서 커지고 개발의욕은 억제되지 못하였다.

브라질의 경제기적을 가져왔다는 벨핀 네토 기획성장관은 국제금융계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중전의 성장정책을 버리고 진축정책을 펴내는 한편 외자도입에 후한 커미션을 주는 등 적극적으로 외자를 끌어 들였다. 82년 8월20일에 멕시코가 외채원금상환연기를 발표하므로써 중남미 개도국 외채위기는 시작되었고 이어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쥬엘라가 구제신청을 해왔다.

미국은 국내 인플레이 문제 등으로 무관심한 듯했지만 IMF를 중심으로 하여 민간은행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막대한 은행자금이 들어가 있어 채무국의 불모로 잡힌 신세가 되어 버렸다.

물론 오일 달러가 미국의 민간 국제은행을 통하여 중남미 개도국에 들어갔고 이들 외채국이

국제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폭락에 시달리면서 순환의 길이 막히게 되면서 실질적 고민을 미국이 떠맡게 된 것이다.

세계경제의 원활한 운용이란 국제유동성의 적정한 유통과 관리에 있다고 하겠는데 이처럼 국제유동성을 공급하여온 미국의 경제가 경쟁력을 잃게되면서 무역 적자가 누적되어왔고 독점적 세계 리더쉽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재정적자마저 가세되고 있다.

이즈음에 일본은 미국의 재정증권과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며 자국시장 개방에 인색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다하지 않고 있으며 서독또한 종속적 역할을 싫어하고 있어 세계경제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할 리더쉽에 문제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8년의 세계무역환경은 중심국인 미국을 둘러싼 문제로서 새로운 질서를 찾지 못하고 혼미를 지속하는 가운데 우선 자국 보호주의의 강화가 진행될 것이다. 다자간 무역체제의 모색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개시될 것이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존 다자간 무역체제가 이완되면서 주요국들간에 쌍무주의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의 시도가 확산될 것이다.

결국은 선진국간 정책협조가 축소균형을 통한 불균형 시정의 방향으로 나갈 것임에 비추어 美 國과 日本이 2.5%의 경제성장을 올해에 달성하여 서방경제성장률은 2.3%로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WEFA 예측).

올해의 세계무역신장률은 작년의 3.9%보다 약간 높은 4.3%로 추정되고 있으며 선진국 3.5%, 개도국 5.5%, 비산유개도국 8.5%로 예측하고 있다(DRI 예측).

한편 주요 선진국간의 국제수지불균형은 환율의 조정과 일본과 구주제국의 내수진작에 힘입어 다소 개선되므로써 미국의 적자와 일본·구주의 흑자가 각각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리는 상반기의 완만한 하락세와 하반기의 반전복귀가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경제 성장의 둔화와 국제유가의 약세기조지속 및 금융진축완화 등에 의한 금리하락요인이 있는가 하면 달러약세 지속에 의한 상승요인이 상호작용

되면서 대체로 현수준에서 소폭 변동이 예상된다.

한편 대만 홍콩 등 주요경쟁국은 미국의 성장 둔화와 통상압력 그리고 임금압박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내수 부문의 상승이 기대되거나 전반적인 경제성장은 지난해보다 모두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대만은 623억불 수출, 437억불 수입으로 7%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홍콩은 8%, 싱가포르도 6% 내외로서

모두 작년보다 낮은 성장을 내다보고 있다.

美国은 괴로운 한해가 되겠지만 서구와 일본의 협조를 얻어내고 시장개방의 압력을 가하면서 스스로 자각의 계기가 되어 세계경제의 불안 요인을 진정시키는데 신중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경제 질서가 잡혀져 나가는 와중에서 감당키 어려운 통상압력과 의무가 지워질 것이 분명하다.

